

*사설 같은 주장

‘법꾸라지’와 ‘미꾸라지’

국민의힘(이하 국힘) 전당대회 지역 합동 연설회에서 극우 성향 유튜브 전한길 씨가 ‘배신자’라고 외치며 소란을 일으켜 대내외 비판이 거세다.

국힘은 전 씨에 대해 중앙당 차원의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실제 이뤄진 징계는 ‘경고’에 그쳤다. 당 지도부의 엄중 조치 요구에도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에 그친 것이다.

국힘 중앙윤리위원회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차 회의를 열어 전씨의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전씨가 전과도 없고,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향후 재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에 이 정도로 그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고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에 이은 가장 약한 징계다. 누가 봐도 솜방망이 징계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사실상 징계 의지가 없는 생색내기 그친 입장일 뿐이다.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한길 씨는 소란 행위로 당 명예를 훼손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당대표가 공식인 시점에서 비대위원장은 당대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말을 아꼈다.

국힘 수석대변인은 “윤리위는 당의 독자적인 기구로 독립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지도부 차원에서 그 결정을 받아들이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어물쩍 넘어가는 태도다. 구차하고 군색하다.

전 씨 본인은 자신의 행동이 ‘국힘 전당대회’의 관심과 흥행에 도움이 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를 다수 당원과 지도부가 동의하는 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여튼 개인이 정당을 흔든 이번 사태는 고의든 저의든 정당 소속 의원이 특정 인물에 대해 지지하는 듯한 모습이 발단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재론하지 않아도 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피의자를 지지하며 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은 그를 공당에서 공공연하게 내세운 과거 행위에 대해 국민들은 알고 있다.

따라서 유튜브 전한길 씨의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돌발행동이 아닌 국힘 쇄신 요구라는 큰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힘 당대표 경선에 참여 중인 조경태 후보는 “당대표로 선출되면 즉시 (전한길 씨를) 제명시키겠다”고 천명했으며, 역시 당대표 후보로 나선 안전수 후보도 “윤리위 결정은 국힘 치욕적인 날”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찬탄(윤석열 탄핵 찬성) 주자로 분류되면서 반(反) 전한길 입장이지만 반대로 반탄(윤석열 탄핵 반대) 주자인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친(親) 전한길 입장으로 대립적이다.

결국 이번 ‘사건’은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내부 세력과 함께 국힘 전체의 위기를 가속화시킬 수 있음을 부각시킨

다. 시쳇말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는 격이다.

온갖 범지식을 총동원해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을 모색해 ‘법꾸라지’로 불린 윤석열 못잖게 ‘미꾸라지’로 불리며 국힘을 휘젓고 다니는 전한길 씨의 행태는 자충수로 보인다. ‘법꾸라지’는 한때 석방까지 끌어내면서 소기의 ‘성과’를 얻기도 했지만 ‘미꾸라지’는 성과보다 성과를 좌우할 만한 ‘시한폭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국힘은 심각성을 모른다. 아니 모른척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하지만 때(시한)가 돼서 내부반발(폭탄)이 거세질 경우 결국은 소멸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더구나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의 강성 기조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당대표의 사면복권 등 국힘 앞에 강경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힘 지도부가 온 ‘웅덩이’를 흐리는 ‘미꾸라지’에 대해 어떻게 ‘결과’가 주목된다.

*전문가 칼럼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부적절한 권력유착

이완재 이슈인팩트 발행인

중견 건설기업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윤석열과 김건희의 권력에 부정한 방법으로 줄대기를 한 정황이 드러나며 참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서희건설과 이 회장에 대한 향후 사법처리가 어떻게 날지 지켜봐야겠지만 알선수재 혐의가 아니라면 뇌물공여죄로 처벌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 회장은 최근 김건희 특검팀에 윤석열 정권에 인사청탁성 뇌물을 건넸음을 인정한 자수서를 직접 보냈다. 이 회장은 만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를 윤석열 정권 초기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앉히기 위해 인사청탁 목적의 수천만원대 반클리프 목걸이를 줬다고 인정했다.

서희건설 이 회장의 만사위 박성근 전 검사는 지난 2022년 6월,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실제로 자수서에는 이 회장이 박 전 검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기회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당부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특검에 이같은 사실을 가감없이 자수하며 뇌물청탁죄를 최대한 감면받을 것을 염두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건희 특검의 오정희 특검보는 13일 브리핑에서 “서희건설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씨가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



▲서희건설 사옥과 이봉관 회장. (사진=서희건설)

의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서희건설 측은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가 돌려받아 보관해 온 목걸이 진품 실물도 임의제출했다. 서희건설 측은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김 여사에게 이 목걸이를 선물했다고 인정했다.

또 김 여사가 목걸이를 받아갔다가 몇 년 후 반환했다며 진품 실물도 특검팀에 제출했다.

특검은 이 회장이 건넸다고 밝힌 목걸이가 그해 6월 김건희 씨가 나토 순방에서 착용한 목걸이인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시기 이 회장의 사위가 한 전 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임명 돼 특검은 사실상 인사 청탁 등의 대가에 따른 뇌물로 보고 수사중이다.

이봉관 회장은 1982년 운송 전문 회사인 영대운수를 세우고 서희건설로 사명을 변경하며 건설업에 진출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도 알려져 있다. 그동안 건설사들이 기피하는 교회, 병원,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사업 다각화를 추진해 왔다. 이 회장 슬하에 세 딸이 있고, 막내딸이 검사 출신이며 사위 모두 법조계 인물로 알려져 있다.

업계 안팎으로 자신의 세 딸과 사위들을 법조인으로 키워 사업 확장 과정에서 정재계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제 이번 윤석열 정권 대동 전 서초동 사옥에 윤석열 후보 선거 캠프 사무실을 무상대여해 주는 등 정권과의 연결고리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회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살아있는 현재 권력을 등에 업기 위한 시도를 지속해 온 것으로 보인다. 전 검사 출신인 자신의 만사위를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앉히는 과정에서 뇌물성 보석 세트를 김건희에게 선물로 주었고, 결국 사법 리스크에 빠진 상황이다.

시장의 신뢰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무엇보다 오너의 뇌물 리스크가 자칫 회사의 내부통제 부실로 비화될 경우 서희건설에 투자한 2만여 개미들의 대량 이탈도 점쳐진다.

이번 서희건설 사태는 경제계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오래된 관행이자 악습 중 하나인 기업의 정경유착, 경연유착의 행태로 일종의 권력과의 검은 커넥션, 부적절한 유착이라는 점에서 경종을 울린다.

*기자레플

정치팀

윤석열의 육탄저항...싸움을 잘라야

김건희특검이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수의를 벗고 속옷차림으로 강렬히 저항해 부상을 우려한 특검팀이 그대로 철수했기 때문이다.

특검에 따르면 이날 윤은 메리야스와 팬티 차림으로 수용시설 바닥에 누운 상태로 체포에 완강히 거부했다고 한다. 수의도 입지 않은 상태로 체면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온몸으로 저항한 것이다.

요즘같은 극한 폭염 날씨에 더워서 옷을 벗은 것도 아니고 극한 호우에 옷이 젖어

벗은 것도 아니고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기 위해 그런 것이라니 그야말로 극한 코미디가 따로 없다.

한때 대통령이랍시고 권세를 부리며 온갖 호방함을 떨던 자가 좁은 감방 안에서 찌질하고 추잡한 모습으로 전락했으니 권력무상이 따로 없다.

윤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정당히 수사에 응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품격을 지켜야 마땅하다. 책임질 것은 지고 법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자칭 법치주의자로 주장해온 자신에 대해서도 부끄러짐이 없는

참모습이라 할 것이다.

더구나 윤 자신은 지난 2021년 9월 경상북도 선대위 출범식에서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중략)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라고 외친 말이 떠오른다.

정작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된 지금에는 모든 법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그가 범지식을 총동원해 변호인들과 한 통속으로 ‘법꾸라지’로 빠져나갈 때도 국민의 공분을 샀다. 하지만 지금은 법 자체를 부정하고 거부하니 전보다 더한 괴씸한 모습이다.

이에 법이란 게 이렇게 무기력하고 험령했던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는 사람들도 많다. 검찰과 법원의 법관들에게만 국가 정의를 기대기엔 시민의 불신감

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결과다.

다시 말하기에도 지칠 정도로 수도 없이 밝힌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진리가 다시 서야 한다. 헌법과 법치가 정상으로 기능하고 작동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3대 특검의 치밀하고 정확하게 조사해 적법한 처벌을 내려야 하는 시대적 과업이 엄중하고 긴요하다. 윤석열 부부와 정권의 불법부당과 악행을 법불아귀(法不阿貴)의 심정으로 수사하고 엄단해야 한다. 사초(史草)를 쓰는 구국의 자서로 특검이 그 역사를 진솔하게 써야 한다.

다시는 소수의 무리들로 인해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이념을 짓밟는 무능한 위정자가 득세하지 못하도록 아예 싸움을 잘라서 국민이 함께 진짜 대한민국, 국민주권 정부를 지켜가야 한다.